

알론소 2골...스페인 4강 '골인'



포르투갈과 준결승 '이베리안 더비'

독일도 그리스 4-2 꺾고 4강 진출

메이저대회 3연패를 노리는 '무적함대' 스페인이 겨침없는 향로에 유로 2012 4강에 진출했다.

스페인은 24일 오전(이하 한국시각) 열린 프랑스와의 8강전에서 전후반 두 골을 몰아친 알론소의 활약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해 체코를 꺾고 4강에 선착한 포르투갈과 28일 결승행 티켓을 놓고 '이베리안 더비'(이베리아반도 국가 끼리의 대결)를 펼치게 됐다.

스페인의 멀 보스께 감독은 가짜 9번 파브레가스를 투입한 '제로톱'을 전술을 선택했다. 반면 프랑스의 로랑 블랑 감독은 내분설에 연루된 나스리를 빼고 드뷔시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투입 '선 수비 후 역습'의 승부수를 띄웠다.

경기 초반 프랑스가 왼쪽 측면을 스페인에 내주고 중앙을 지키는 작전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드뷔시가 나선 오른쪽이었다. 드뷔시가 수비에 치중하자 수비부담이 줄어든 스페인의 왕백 알바는 마음껏 공격에 가담했다.

승부는 전반 19분에 결정났다. 이니에스타의 침투패스를 이어받은 알바가 프랑스의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며 크로스를 올렸고 중원에서부터 달려온 알론소가 마크맨이 없는 상태에서 골키퍼와 수비수의 움직임을 보고 정확하게 헤딩골을 터뜨렸다. 자신의 100번째 A매치를 자축하는 골이었다.

한 골을 앞서 스페인은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특유의 패스게임을 하며 1-0 스코어를 기록했다.

후반 20분께 스페인은 토레스와 페드로를 투입해 공격을 더욱 강화했고, 프랑스는 나스리와 메네스를 투입, 전술 변화를 줬다.

하지만 프랑스는 지고 있는 텁텁지 않게 득점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리베리가 수비와 공격에서 고군분투했지만 혼자서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다.

경기가 그대로 끝날 것 같았던 후반 44분에 스페인의 쇄기 골이 터졌다. 페드로가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며 얻은 페널티킥을 알론소가 착지하면서 차 넣어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무적함대의 '비밀병기' 알론소는 강력한 중거리슛과 함께 헤딩골과 PK골을 터뜨려 숨겨온 공격본능을 마음껏 과시했다.

'아트사카' 프랑스는 90분간 유효슈팅이

1개에 불과했을 만큼 스페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한편 지난 22일인 포르투갈이 후반 34분에 터진 호날두의 헤딩 결승골로 체코를 1-0으로 꺾고 4강에 선착했다. 23일엔 독일이 전반 종료 직전 람의 선제골을 신호탄으로 후반에 케디라, 클로제, 로이스가 3골을 몰아넣어 그리스를 4-2로 완파해 준결승에 올랐다.

경기 초반 프랑스가 왼쪽 측면을 스페인에 내주고 중앙을 지키는 작전은 성공하는

나스리와 메네스를 투입, 전술 변화를 줬다.

/유제관기자 jkyou@kwangju.co.kr



아마골프 최강자들 한자리에

지난 19~22일 회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0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에서는 김효주(대원외고)가 남자부에서는 김효석(한체대)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시상식후 광주대 김학종총장과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김효주 "적수가 없다"

호심배 아마골프 2년 연속 우승...남자부 김효석 1위

골프천재 김효주(대원외고)가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김효주가 지난 22일 회순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제10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4라운드 합계 11언더 273타로 여자부 정상을 밟았다. 남자부에서는 한체대 김효석이 16언더파 268타를 기록하면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대한골프협회는 이번 제10회 호심배 대회를 비롯해 제19회 송암배(8.21~24, 대구C.C.), 제16회 이성배(8.28~31, 레이크사이드 C.C.), 허정구배 제59회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9.4~7, 남서울C.C.) 등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겸한 아마추어 4대 메이저 대회 성적 등을 합산해 오는 11월 국가대표를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호심배는 광주대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ogn 박사가 광주대 무역학과 출신인 최경주 선수의 PGA투어 우승을 기념하고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 창설한 대회로 다른 3개 메이저대회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첫 선발전인 탓에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하는 '빅매치'로 꼽히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김효주는 3리운드까지 7언더로 공동 4위에 처져 있었으나 마지막 라운드에서 4언

더를 치며 종합 11언더로 우승을 차지했다.

3리운드까지 1위를 유지했던 박결(동일전 자정보고 1)은 마지막 리운드에서 1언더를 추가하는 것에 그쳐 10언더로 아쉽게 3위에 머물렀다.

대한골프협회는 이번 제10회 호심배 대회를 비롯해 제19회 송암배(8.21~24, 대구C.C.), 제16회 이성배(8.28~31, 레이크사이드 C.C.), 허정구배 제59회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9.4~7, 남서울C.C.) 등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겸한 아마추어 4대 메이저 대회 성적 등을 합산해 오는 11월 국가대표를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호심배는 광주대 창설자인 고 호심 김인ogn 박사가 광주대 무역학과 출신인 최경주 선수의 PGA투어 우승을 기념하고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 창설한 대회로 다른 3개 메이저대회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첫 선발전인 탓에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하는 '빅매치'로 꼽히고 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런던올림픽 성회릴레이 주자

이승기 등 한국인 24명 참가

36일째를 맞은 런던올림픽의 성화 릴레이가 '한국 주자의 날'로 펼쳐졌다.

올림픽 성화가 전체 여정의 절반 구간을 돌파한 첫날인 지난 23일(현지시각) 가수 겸 텔런트인 이승기씨를 비롯한 한국인 주자 24명이 리스케인트애즈~맨체스터 구간에서 성화 릴레이를 벌였다.

한국인 주자들은 이날 흔한 날씨에도 지역민의 환영 속에 주어진 구간을 달리며 런던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희망 사연 응모를 통해 선발된 한국인 24명을 포함해 총 164명의 주자가 성화 봉송 이벤트에 동참했다.

삼성전자는 '모든 사람의 올림픽'을 주제로 전 세계 58개국에서 1천 360명의 성화 봉송 주자를 선발해 성화 봉송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고 모델인 이승기씨는 맨체스터 북동쪽 도치데일의 스탠퍼드 애비뉴에서 부터 맨체스터 로드를 따라 320m 구간을 달렸다.

/연합뉴스

광주FC 6골 '골잔치'

'엘로더비' 전남에 완승

광주 FC가 화려한 골 퍼레이드를 펼치며 무승부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광주 FC는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19라운드 경기에서 6골을 몰아넣으며 13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지난 3월 24일 부산전 승리 이후 91일 만의 승리다.

경기 시작과 함께 전남의 백패스 실수가 나왔고 광주 공격수 복이가 그 틈을 노려 슈팅을 날리며 상대 수비진을 위험들었다. 광주의 공습에 당황한 전남이 경기 시작 4분 만에 무너졌다.

경남에서 광주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박민의 시즌 첫 골과 함께 광주의 골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코너킥 찬스에서 이승기가 뛰어준 공을 박민이 헤딩슛으로 연결시키며 1-0을 만들었다. 전반 28분에는 김수범의 패스를 받은 김동섭이 터닝슛을 날리며 다시 전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2분에는 김은선이 박기동의 도움을 받아 골을 막을 뻔 했고, 전반 43분과 47분에는 김동섭과 박민이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리며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광주 FC는 전남에 미안한 마음이 커다. 승리를 기다려온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세트파스를 반복해서 훈련을 했는데 전남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전반전 5골은 역대 4번째 기록, 1987년 포

철, 1993년 일화가 5골을 몰아 넣은 적이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가 희생양이 됐다.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6-1 승리를 거두었던 경기에 나온 기록이다.

광주의 골 행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후반 11분 김동섭과 고체에 들어갔던 주양파울로가 스피드를 앞세워 전남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후반 20분 골에 어려이 정면에서 이승기의 패스를 받은 주양파울로가 오른발로 공을 차 넣으면 팀의 6번째 골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의 불붙은 공세에 전의를 상실한 전남은 이렇다할 슈팅도 해보지 못하고 쓸쓸히 짐을 냈다.

전반 32분에는 김은선이 박기동의 도움을 받아 골을 막을 뻔 했고, 전반 43분과 47분에는 김동섭과 박민이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리며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광주 FC는 전남에 미안한 마음이 커다. 승리를 기다려온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세트파스를 반복해서 훈련을 했는데 전남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전반전 5골은 역대 4번째 기록, 1987년 포

철, 1993년 일화가 5골을 몰아 넣은 적이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가 희생양이 됐다.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6-1 승리를 거두었던 경기에 나온 기록이다.

광주의 골 행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후반 11분 김동섭과 고체에 들어갔던 주양파울로가 스피드를 앞세워 전남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후반 20분 골에 어려이 정면에서 이승기의 패스를 받은 주양파울로가 오른발로 공을 차 넣으면 팀의 6번째 골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의 불붙은 공세에 전의를 상실한 전남은 이렇다할 슈팅도 해보지 못하고 쓸쓸히 짐을 냈다.

전반 32분에는 김은선이 박기동의 도움을 받아 골을 막을 뻔 했고, 전반 43분과 47분에는 김동섭과 박민이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리며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광주 FC는 전남에 미안한 마음이 커다. 승리를 기다려온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세트파스를 반복해서 훈련을 했는데 전남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전반전 5골은 역대 4번째 기록, 1987년 포

철, 1993년 일화가 5골을 몰아 넣은 적이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가 희생양이 됐다.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6-1 승리를 거두었던 경기에 나온 기록이다.

광주의 골 행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후반 11분 김동섭과 고체에 들어갔던 주양파울로가 스피드를 앞세워 전남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후반 20분 골에 어려이 정면에서 이승기의 패스를 받은 주양파울로가 오른발로 공을 차 넣으면 팀의 6번째 골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의 불붙은 공세에 전의를 상실한 전남은 이렇다할 슈팅도 해보지 못하고 쓸쓸히 짐을 냈다.

전반 32분에는 김은선이 박기동의 도움을 받아 골을 막을 뻔 했고, 전반 43분과 47분에는 김동섭과 박민이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리며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광주 FC는 전남에 미안한 마음이 커다. 승리를 기다려온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세트파스를 반복해서 훈련을 했는데 전남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전반전 5골은 역대 4번째 기록, 1987년 포

철, 1993년 일화가 5골을 몰아 넣은 적이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가 희생양이 됐다.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6-1 승리를 거두었던 경기에 나온 기록이다.

광주의 골 행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후반 11분 김동섭과 고체에 들어갔던 주양파울로가 스피드를 앞세워 전남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후반 20분 골에 어려이 정면에서 이승기의 패스를 받은 주양파울로가 오른발로 공을 차 넣으면 팀의 6번째 골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의 불붙은 공세에 전의를 상실한 전남은 이렇다할 슈팅도 해보지 못하고 쓸쓸히 짐을 냈다.

전반 32분에는 김은선이 박기동의 도움을 받아 골을 막을 뻔 했고, 전반 43분과 47분에는 김동섭과 박민이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리며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광주 FC는 전남에 미안한 마음이 커다. 승리를 기다려온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세트파스를 반복해서 훈련을 했는데 전남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전반전 5골은 역대 4번째 기록, 1987년 포

철, 1993년 일화가 5골을 몰아 넣은 적이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가 희생양이 됐다.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6-1 승리를 거두었던 경기에 나온 기록이다.

광주의 골 행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후반 11분 김동섭과 고체에 들어갔던 주양파울로가 스피드를 앞세워 전남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후반 20분 골에 어려이 정면에서 이승기의 패스를 받은 주양파울로가 오른발로 공을 차 넣으면 팀의 6번째 골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의 불붙은 공세에 전의를 상실한 전남은 이렇다할 슈팅도 해보지 못하고 쓸쓸히 짐을 냈다.

전반 32분에는 김은선이 박기동의 도움을 받아 골을 막을 뻔 했고, 전반 43분과 47분에는 김동섭과 박민이 다시 한번 슈팅을 날리며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